新任 윤옥순 · 退任 연효숙 회장

대한적십자사 포천지구협의회 회장 이 · 취임식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포천지구 협의회는 1월24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10개 봉사회원 및 내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연효숙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3년간 지구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선거가 아닌 추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고, 후임자가 경력도 있으신 분이라 마음 편히 갈 수 있다" 며 "물러나더라도 평범한 솔모루 회원으로서 더욱 더 노력하는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윤옥순 회장은 "적십자봉사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하며 저 자신은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으나 10개 봉사회장님 및 봉사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조흥 국회의원은 "지난 3년간 말없이 봉사해오신 연 회장의 퇴임을 축하하며 새 주인 또한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 든든하고 봉사는 많이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인데 지역의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일만 골라서 해온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영철 부시장은 "포천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신도시, 민자고속도로, 전철 등 하드웨어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이룩될텐데 내부에 사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누가 봐도 살기 좋은 포천이 될 것이며 임기동안 고생하신 회장님께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포천지구 협의회는 ▶지구협의회 ▶일동봉사회 ▶영중봉사회 ▶영북봉사회 ▶은행나무봉사회 ▶가산봉사회 ▶솔모루봉사회 ▶무궁화 봉사회 ▶선단사랑봉사회 ▶아마무선봉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노인 위한 연예인 초청 위문공연

다실연 포천분도마을 노인들과 한마당

다산사상을 실천하는 경제인연합(위원장 이홍우)은 뉴라이트 의정부연합의 후원으로 1월20일 가수 한강 등 8명의 가수연예인들을 초청해 노인전문 무료 요양원으로 알려진 포천분도마을(원장 김테레사)에서 도토리묵, 음료수, 다과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위문공연을 가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한 행사여서 인근 주변의 따뜻한 시선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는 포천시 지체장애인협회 김영환 회장과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영규 회장 및 인근지역에서 의료기구 생산업을 운영하는 문백운 회장 등 많은 기업인과 상업인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가수 한강의 돋보인 사회진행으로 춤과 노래를 함께 하며 좋아하는 노인들과 어우러진 초청가수들은 부모님 생각이 난다며 더욱 뜨겁게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하는 공연에 열중했다.

한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 즐거운 가운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모습을 본 서지민 가수는 그 노인과 부둥켜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포천분도마을 김테레사 원장은 "2004년도에 처음 이 요양원이 생긴 이래 큰 공연은 처음이라며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유쾌하게 놀아줘서 좋았다"고 밝히고 다음기회에도 공연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행사를 주최한 이홍우 다실연 위원장은 "정치 경제 사회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때에 서로간에 조금씩 이해를 하고 사랑을 베푼다면 싸우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몸과 마음에서 오는 모든 병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힘든 겨울빨래 해 드려요"

대한적십자사 포천아마무선 봉사회 무료세탁 봉사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포천아마무선 봉사회(회장 김수성)는 1월24일 영북면사무소에서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세탁 봉사를 실시했다.

포천시 최초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포천아마무선봉사회 회원 및 영북면 부녀회원, 어린이 봉사단, 일반봉사자등 40여명이 영북면 관내 무의탁 및 독거노인 40세대의 이불, 담요 및 무거운 겨울빨래를 수거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이동빨래차량 2대(5톤 1, 3.5톤 1)의 세탁기 7대로 세탁하여 다시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아마무선봉사회 김수성 회장은 "무의탁노인들이 무거운 담요나 이불빨래를 못해 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번 행사를 하게 되었다" 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인 무료세탁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옥 부녀회장은 "아마무선봉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해 무료세탁봉사를 한다고 하여 참여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행사가 자주 있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영북면에서 전기, 수도, 하수도 등을 후원하고 영북면 새마을 부녀회원 10여명이 세탁물 수거 및 배달에 참여하는 등 후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웰빙 부사의(不思意)

7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한 것'을 포함한 상태

이 규 임
한국영상제작학회 회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하면 영어로 내츄럴(natural)을 생각하고 인공하면 아티휘셜(artificial)을 생각한다. 아티휘셜의 상대개념(相對槪念)으로서 내츄럴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동양에서 생각하는 자연은 그런 것이 아니다. 동양에서 생각하는 자연은 아티휘셜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에서의 자연을 말하는 것이다.

서양에서 말하는 아티휘셜이란 인공(人工)이 가미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상대 개념으로서의 내츄럴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를 자연으로 본 것이다. 동양에서는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것'을 포함한 상태의 '자연'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위자연(無爲自然)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자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도록'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 '자연의 섭리(攝理)'라 하는 것이고 그 자연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연의 이치(理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의 섭리에는 균형(均衡)과 조화(調和)라는 잣대가 들어있다. 그 균형과 조화라는 잣대 속에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돌고 도는 것이고 세상만사(世上萬事)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동양 사람들의 생각이다.

균형과 조화라는 잣대가 동양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동시성을 놓고 볼 때 '음양(陰陽)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동양이 낮일 때 서양은 밤이 되는 것이다. 동시성을 놓고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극(太極)이라는 원점에서 볼 때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은 것이다.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요 태극이 무극이라는 잣대'를 놓고 보면 똑 같은 것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란 잣대를 놓고 보면 똑 같은 것이다.

그 같은 원리(原理)가 동양에선 통하고 서양에선 안 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 같이 자연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자연은 '정복(征服)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은 '공존(共存)의 대상'이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면서 난개발(亂開發)이 시작된 것이고 환경오염(環境汚染)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인류는 한 때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무한개발(無限開發)에 도전했었다. 그 결과 인류는 자연재해(自然災害)를 받고 있다. '자연의 보복'을 받고 있다. '균형'을 깼기 때문이다. '조화'를 깼기 때문이다. 생물(生物)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무생물(無生物)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중심점(中心點)을 향해 조화점(調和點)을 향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바람이 일고 태풍(颱風)이 이는 것이다. 화산(火山)이 터지고 지각변동(地殼變動)이 생기는 것이다. 지구 스스로 균형(均衡)을 잡기 위해서 조화(調和)를 잡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것이다. '균형과 조화라는 잣대'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다.

균형과 조화라는 잣대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원심력(遠心力)과 구심력(求心力)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천체가 돌고 있는 것이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만물이 생성소멸(生成消滅)하는 것이다. 일묘연만왕만래 용변 부동본(一妙衍萬往萬來 用變 不動本) 일년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천부경(天符經)에 나오는 말이다. 알아듣기 바란다.

Essay

행복한 오후

윤 순 옥
포천의제21협의회 고문

따사로운 오후의 햇빛을 따라 마음은 그림자 좇아 길 떠나는 나그네처럼 산길을 향하고 있다. 산중턱쯤 오르니 산새소리가 며칠전보다 한결 톤이 높아진 것 같다.

그들로 포근한 날씨가 봄날이 가까이 왔음을 감지한 기분에 할 말이 많아졌나 보다. 듣고만 있어도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산새들의 지저귐!

촉촉이 젖어드는 등줄기의 땀방울이 가느다란 실바람에 상쾌함마저 느끼니 착각 속이지만 나는 분명 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 홀로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지나 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산에서 만나도 시장통에서 만나도 "어머 오늘은 한가하신가 봐요?" 바쁘다고 떠든 적도 없는데 나만 보면 건네는 인사말이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달리 할말이 없다. 무슨 연유로 바빴을까? 생각하니 답 없는 웃음뿐이다.

저 맑은 하늘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 솔잎 깔린 편한 곳을 찾아 털썩 앉아 저 아래 풍경을 보니 무엇이 부러우랴. 이 순간에.....

높은 권세를 누리며 사는 분들!

그분들은 아마 이 시간에 머리에 쥐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소를 금치 못하고 한바탕 웃어본다.

혼자 웃는 모습이 남들에겐 실성한 사람 같아 보일지 몰라도 탁트인 대자연속에 홀로 신선인 듯 취해있는 내 기분을 당신들이 어찌 알 수 있으리.....

권세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수년 쌓아온 공든 탑이 상대흠집 내기에 급급해 자기에게 돌아온 상처의 치유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어리석음이다.

그런일, 꼭 내 일이 아님에도 인생수레바퀴에 맞물려 경험해 본 그런 날들!

그 치욕을 한데 꽁꽁 묶어 이세상 제일 높은 곳에서 지구 밖으로 던져버리련다.

다 버리고 난 후의 후련함은 나만의 통쾌함이다.

털어 버리고 난 후 텅 빈 가슴 가득 맑은 하늘을 품어 안고 달디단 숲의 내음에 취해 순간의 몽상 속에 천상에 쉬고 계실 내 어머니를 만나 행복한 휴식을 취한다.

한참만에 눈을 떠 먼 곳을 보니 서산낙조가 찬연하게 비추고 있다.

마음은 훨훨 한 마리 새가되어 붉은 노을 속에 날개 짓을 하고 있다.

정녕 나만의 행복한 오후였다.

지유기고

황금돼지 2호 탄생

박 혜 자
주부 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장

엄동설한에도 곱고 화려한 자태와 수려함을 뽐내며 활짝 피어 있는 겨울에 핀꽃 다알리아옆에서 수줍은 듯 중앙설비 정남용 사장님이 포즈를 취해 주셨다.

정해년 정월 새해가 시작되고 2007년을 채 알리기도 전에 정 회장님께서 모아주신 황금돼지2호 조그마한 저금통에서 어찌나 많은 돈이 쏟아져 나오던지 깜짝 놀랐다. 일금 34만2천190원이란 거금이 모아져서 가득 채워질때까지의 남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동전모으기에 동참을 하니 저절로 신바람이 난다고 하시며 빨리 3호 저금통 요청을 하시어 갖다 드렸다.

사모님 역시 부유함과 풍성함을 나눌수 있는 소박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뜰안 정원에는 고추와 귤, 토마토가 계절을 망각하고 주렁주렁 달려 있고 꽃들도 만개하였다.

정성스레 꽃밭을 가꾸는 마음과 풍성함과 부유함을 함께 나눌수 있는 것과 베풀 줄 모르는 게으른 부자상 어느쪽이 더 유익한 삶인가를 자문자답 해보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싶다.

내가 본 정남용 사장님은 마음과 자신을 굽힐줄 아는 겸손하고 언덕이 있는 사람이다. 부지런하고 넉넉하고 움직이는 성실함과 일하고 나누는 덕성이 있다. 사랑과 열정, 뜨거운 감성이 식지 않은 바램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욱 새로운 모습의 인연의 끈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자산으로 더욱 단단하게 효과있는 삶의 에너지로 전환하고 싶다고 한다.

제3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사모님의 건강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쾌유하시길 기원한다. "정남용 사장님 사모님 건강하세요!"라며 파이팅을 외쳐본다.

지유기고

희망의 시작

신 형 숙
주부 명예기자단총무

정해년의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을 채우고 있다. 새해가 겨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까닭은 묵은 것들이 엄동설한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란다.

계절이 변하고 해가 거듭 바뀌어 어느덧 불혹의 즈음에 선 지금 세월의 무상함이란 "세월은 가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한다"는 법정스님의 말씀이 새삼스럽지 않음이다.

나름대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돌이켜보건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달려왔으나 그것이 참다운 삶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밖에서의 질시가 아니라 가족간의 사랑과 따뜻한 정이었다.

그동안 크게 신경 써주지 못해 항시 안타까웠고 미안했던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이 어느새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위로해 주는 남편은 나의 커다란 버팀목이다.

나와 사회의 매개체가 바로 가정이다. 그 가정은 어떤 이유에서도 흔들리거나 분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란 피요. 눈물이요. 땀인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환한 미소를 자아내는 한 울타리를 만듭이다.

새해의 첫 문턱에 나는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새해소망도 그러하겠지만 올해는 좀더 사랑하고 좀더 건강하게 좀더 밝은 사회로의 희망을 안고 힘차게 새 발걸음을 내딛어 본다!

지유기고

아들과 삼십오일을 보내며

김 은 숙
주부 명예기자

내일 아침 한양중학교 축구부 숙소로 아들을 보내자니 좀 체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아들, 그래 겨울 지방으로 동계훈련을 간 아들을 보러 내려간 엄마 아빠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 조금 더 있다 가면 안돼?" 했던 그 아이가 이젠이젠 나의 키보다 훌쩍 커버린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해 있다.

해마다 가던 동계훈련을 올해는 접어야 했다. 과격한 운동과 급성장으로 인해 무리가 와서 서울 중화동에 있는 재활센터로 허리근력강화 재활을 받기 위해 고된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기 싫다는 말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아들이 대견스러웠다.

집안일에 가게일에 쫓기며 네 살박이 딸까지 챙겨야 하는 바쁜 시간을 보내는 나는 집에 와 있는 아들로 인해 부지런을 떨어야 했다.

몸은 힘에 부치고 고되어도 마음 한복판은 가슴 뿌듯한 즐거움이 샘솟았고 모처럼 집안에 사랑 넘치는 따뜻한 행복감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아침일찍 밥을 먹여 보내고 저녁이면 아들 전화를 받고 덕정역으로 향하는 내 마음은 애인을 마중나가는 설레임으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고가는 중에 아들과 나누는 농담 섞인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 짜증한번 내지 않고 어린 동생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다정다감한 오빠인 아들... 보면 볼수록 행복한 순간순간을 떠올리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어본다.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 건강하고 너의 꿈을 이루는 그 날까지 그 커다란 꿈을 향해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렴! 엄마 아빠는 너의 뒤에서 조용히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고 밀어주마... "화이팅!"

연탄

융경자
주부 명예기자

창고에 시커먼 연탄이 가득
덕분에 겨울 앞에서 든든하다네

집게에 물린 연탄은 제법 묵직한데
밑에서는 새하얀 재가 되어
가뿐하게 나온다네

위풍당당 시커멓게 쌓여있던 모습은 간데없고
기운빠져 골다공증에 힘겨워 하시는
할머니 무릎처럼 푸석푸석한 모습이 되었네

시뻘겋게 타올라 아랫목 따뜻하게 덥히고
이글이글 지글지글 맛난음식 만들어 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네

모든 열정 불사른 후 남은 불씨는 다음에게
기꺼이 넘겨 주시고 어린 손주 유치원 가는길
미끄러울까봐 뼈골 빠진 온몸을 부숴
얼음빙판을 덮으셨다네

아들, 손주 그리움에 가슴은 숯검정이요
하얗게 머리 세고 세월까지 세어버린
내 어머니 모습이라네

짧고도 가슴 시린,
하지만 위대한 어머니 모습이라네